

DJ

와 함께 한여름밤 지구촌 음악여행 떠나요

광주문화재단 8월 8일~12일
재즈·블루스·포크·컨트리...
‘빛고을뮤직페스티벌’
DJ 문형식 해설자로 참여
인디킵 트리오·김목경 밴드 등

‘음악과 함께 떠나는 아메리카 대륙여행.’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빛고을뮤직페스티벌 -DJ와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이 오는 8월 8일~12일(오후 7시 30분·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아메리카 음악여행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지난 2020년 라틴음악 여행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유럽음악여행에 이어 올해는 아메리카 음악여행을 떠난다. 올해 역시 문화기획자 장용석이 예술 감독으로 참여해 아메리카 대륙의 매력에 흠뻑 빠질 만한 라인업으로 무대를 꾸민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인 재즈, 블루스, 포크, 컨트리 등이 분야 국내 최고 뮤지션들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도 DJ 문형식이 해설자로 참여해 친절한 설명으로

무더운 여름 밤 시민들에게 더위를 잊을 만한 매력적인 공연을 선사한다. 첫 공연인 8일 무대는 국내 재즈씬이 주목하고 있는 인디킵 트리오가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을 주제로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미국 정통 재즈를 연주한다. 피아노 앤디킵, 베이스 김인영, 드럼 김성화, 객원보컬 윤덕현으로 구성된 인디킵 트리오에는 ‘New composition’, ‘Route 66’, ‘Misty’ 등을 들려준다. 이어 9일에는 ‘포크, 민중의 음악’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선구자인 이정선 밴드가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보컬 이정선을 중심으로 베이스 김경남, 기타 장재환, 키보드 이상우, 멜로디언 박재형, 드럼 김지연의 이정선 밴드는 ‘외로운 사람들’, ‘산사람’, ‘그녀가 처음 울던 날’, ‘항구의 밤’, ‘섬소년’을 연주한다. 다음은 대학 교수이자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이 이끄는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가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I (10일)’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박밴드 세계로 초대한다. 11일은 국내 유일



컨트리 공방

의 컨트리 음악 밴드로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는 컨트리 공방이 ‘컨트리, 민속에서 팝으로’를 주제로, 미국 민속음악에 한국적인 하모니를 더한 크로스 오버 음악으로 흥을 돋운다. 이날 공연에는 ‘봉어 뺑’, ‘그곳에서’, ‘흐른다’, ‘다시’, ‘나도 엄마 있다’, ‘초상’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공연은 국내 블루스 음악을 대표하는 독

보적인 뮤지션 김목경 밴드가 ‘블루스, 경계(境界)의 음악’을 주제로 대중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운드를 선사한다. ‘Mojo boogie’, ‘play the blues’, ‘저무는 바닷가’, ‘엄마 생각’ 등 블루스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석 5000원, 예매 티켓링크. 문의 062-670-7954.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정선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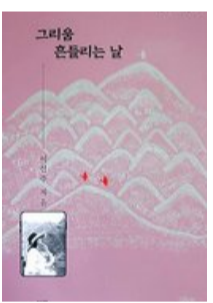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DJ 문형식

이선주 시인 디카시집 ‘그리움 흔들리는 날’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디카시’를 창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를 활용해 시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일상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방증이다. 디카시의 장점은 찰나의 순간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학적 감성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직 은행원이 디카시선집을 발간했다. 해남 출신 이선주 시인이 펴낸 ‘그리움 흔들리는 날’ (서영)은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와 시적인 언어가 결합한 작품집이다. 96편의 시가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인생 이야기를 빚댄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인이 생각하는 명품형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 ‘명품’, ‘손녀와의 일상을 담은 ‘동심’ 등 일상에서 느끼고 감응했던 서정적 의미를 정갈하게 담아낸 작품 등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자신의 삶을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동행’과 ‘여정’도 진진한 울림을 준다.

이선주 시인은 “이제야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때까지 써왔던 시들을 모아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고 수필도 계속해서 쓸 생각입니다. 순간 순간의 맑고 고운 심성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덕은 평론가는 “시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생의 깊은 의미까지 보듬어 안고 있다”며 “그래서 디카시를 읽는 내내 행복과 감동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선주 시인은 조선대 세무회계학 석사, 전남대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했으며 광주시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기계발서 ‘타래는 말이야’ (공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이선희 개인전,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그림 속 풍경을 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주황색과 푸른색 등 화사한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해녀로 변신한 고양이 모습은 유쾌하다. 서양화가 이선희 작가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남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양림동 225-25)에서 열린다.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평면 회화를 비롯해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줄곧 서울에서 활동하다 1년 전 제주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풍광 좋은 제주에 정착하고 나니 아무래도 더 많이 걷고, 자연을 접하고, 기록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평안해졌다. 그림 속에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똥구름집’ 시리즈는 그의 똥구름 잡는 이야기

가 ‘현실’이 된 것처럼, 그림을 보는 이들도 새로운 시도에 머뭇거리지 말기를 권한다. 늘 여행지에서 삶을 꿈꿨던 그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다가오자 전국지도를 펴놓고 머물 곳을 찾았고, 결국 제주에 정착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인들이자, 작가 자신이다. 양중맞은 고양이들이 물질을 하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모습은 사랑스럽다. 그의 회화 작품은 입체감이 돋보인다.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하지만 고양이 그림의 경우 크리стал을 화면에 붙이거나 고양이 수염을 퍼(fur)로 제작하는 등 조형성을 부여했다. 한 때 곡성 옥과 미술관 전시를 위해 도자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던 그는 이번 전시에서 모빌 형태의 조각 작품도 함께 전시장에 걸었다. 작품은 아의 공간과 맞닿아 있는 아트폴리곤과 어우러



‘똥구름집 -아자수와 로즈마리’



‘바람과 비랑-제주의 2월’

져 바람이 불면 살며시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낸다. 또 3D영상 작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영상작업도 시도했다.

평면회화 작품에는 다양한 문양의 주황색 프레임이 피처럼 둘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인도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문양들로, 작가는 이 프레임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이트(문)’라 생각하며 작업했고, 당신도 ‘그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30년 발자취를 돌아보다

19일~11월20일 아카이브전...연혁·전시·교육 등 5개 활동 분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정승보)은 1981년 8월 1일 광주문화회관에 문을 열었다. 전국 최초의 국립미술관이었다. 이후 2007년 지금의 중외공원 자리로 옮겨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본관과 더불어 하정음미술관, 서울G&J갤러리, 사진전시관, GMAP, 금남로본관 등 7개관을 운영하며 지역미술을 견인하고, 세계미술의 창구 역할을 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아카이브 전시를 19일부터 11월20일까지 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92년 미술관 개관 시기부터 2021년 최근의 자료까지 미술관의 30여년 역사를 연혁, 전시, 교육, 창작지원, 본관 등의 5개 활동 분야로 분류해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시기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의 역사와 관련한 사진, 영상, 문서 등 다채로운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전시, 소장품, 교육, 작가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상을 만날 수 있다. 또 전국 국립미술관 최초로 2009년 문을 연 이후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북경장작센터 798, 지역 작가들의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마련한 서울 인사동 G&J갤러리, 하정음미술관, 비엔날레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션을 실행하는 GMAP 등 광주 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전시공간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진행하는 본관의 어린이미술관, 문화센터,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사진도 전시된다. 그밖에 지역민을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미술관대학 등 각종 문화예술강좌, ‘남도미술뿌리전’, ‘지역미술 아카이브전’ 등 지역 미술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미술관이 의욕적으로 개최했던 다양한 기획전 자료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30주년 역사 전’이 19일부터 11월20일까지 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아카이브전시 기간 중에는 올해 시립미술관이 30주년 기념전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시립미술관 공동기획전 ‘권진규’전과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건희컬렉션’전 등 화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